

「가시없는」 음나무 생산 성공

산림청 남부지방산림관리청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가시가 전혀 없는 음나무(일명 개두릅)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. 대량증식을 통하여 2002년 재배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소득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.

- 산림청 남부지방산림관리청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봄철 새순이 식품으로 인기 높은 가시가 전혀 없는 음나무(일명 개두릅)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. 지난 '99년 음나무 종자를 파종하여 묘목을 생산하던 중 가시가 적은 돌연변이성 어린나무가 발견되어 이를 2년간 우량개체 선발을 통해 뿌리재배를 한 결과 가시 없는 음나무가 탄생하게 되었다. 현재 양묘장에서 90그루가 후계자 생산을 위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.
 -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임업연구원과 공동으로 대량증식 방법을 통하여 2002년 봄 음나무 재배농민에게 묘목을 싼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. (☎054-783-1009)
 - 음나무 새순은 단백질, 칼슘, 철분 등이 많
- 아 봄철 대표적인 고급진미산채(식품)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맛과 향기가 독특하여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.
 - 수피(해동피)와 근피(해동수근)는 자양강장 및 신경통 등 성인병 예방과 치유에 널리 사용된다.
 - 그동안 수요증가와 무차별 남획으로 생산 감소가 나타나 자연산의 공급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가시없는 음나무 성공으로 인공적인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농촌지역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농·산촌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산림내 재생하고 있는 음나무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